

# 마 식 령 산 발 들 에 올 려 가 는 행 복 의 웃 음 소 리

눈이 내려 하늘아래부터 발끝까지 모두 흰다. 눈이 부신다. 하는 이 강산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 우리는 근로자들의 희열과 랑만이 한 에 올랐다. 가 새하얗다. 그 빛에 반사되는 설경의 아 여기가 바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 결정체로 솟아난 마식령스키장이다. 얼마 겻 넘쳐나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취재길 본사기자 권 지혜, 최 대 성

## 인민사랑이 펼친 은빛주로들

우수가 지나고 날씨도 따뜻해지지만 마식령지구는 아직도 흰눈으로 덮여있다. 그 흰눈에 지치고 미끄러지고 어루러지며 스키타기, 썰매타기하는 남녀노소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가 산골을 깨우고있다.

어제는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오늘은 또 희한한 스키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행복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기쁨과 랑만으로 가슴이 젖어있게 한다.

오늘의 이 희한한 전경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마식령지구의 천지개벽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애국의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만만시련을 이겨낸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리라 마식령의 천연산악지대에 스키장을 일떠세울것을 받기하시고 남달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건설을 단 1년동안 끝내기 위한 대단한 작전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고 120여굽이나 되는 험준한 산밭을 여러차례나 넘고 넘으시며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온갖 대책들을 다 세워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마식령스키장의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마식령스키장이 웅건한 자태를 드러냈을 때에는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시며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안전하게 삭도를 타며 스키를 즐길수 있도록 자신께서 먼저 삭도를 타시고 안전성을

시험하시며 대화봉정점에까지 오르시었다. 그 모습을 TV로 보으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뜨거운 격정을 삼키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현대적인 대규모스키장을 꾸려주시고도 그곳에서 스키를 마음껏 타며 즐길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싶으시여 한해가 지나는 마지막달에 성대한 스키장개장식을 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과 열을 마식령의 은빛주로들은 전하고있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행복의 창조물들,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풍경이 끝없이 늘어날것이다.

에로부터 산세가 너무도 험하여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가는 령이라고 그 이름도 마식령인 이곳은 해발높이가 768m에 달한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은빛세계 아름답게 펼쳐지는 마식령지구는 최적의 스키장으로서 웅장한 수림과 더불어 유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마식령스키장의 총부지면적은 1 400여정보이며 가장 긴 스키주로의 길이는 5 091m. 가장 짧은 스키주로는 682m이며 주로의 너비는 40~120m. 최대경사각도는 39.8°이다. 대화봉까지 오르내리는 12.2km의 도로는 눈썰사와 눈오토바이들의 경주주로도 료용되고있다. 이 밖에 길이 80m, 너비 32m규모의 스케트장도 있다. 수려



마식령스키장에는 스키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지난해말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스키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 기상관측소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스키장의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치로부터 온도, 바람, 기압, 습도 등 기상관측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종합감시조종실에 전송한다. 지난해말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스키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 기상관측소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스키장의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치로부터 온도, 바람, 기압, 습도 등 기상관측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종합감시조종실에 전송한다. 지난해말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스키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 종합감시조종실 스키장의 60여개소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송상카메라에서 전송받은 자료를 대형 액정TV화면으로 보며 스키장전반상태를 감시조종하고 기상관측소에서 받은 자료를 조선어와 영어로 변환시켜 대형전광판에 전송한다. ◆ 대형전광판 마식령스키장에서 제일먼

다, 삭도에 몸을 실으면 몸이 금방 허공으로 등실 떠오른다. 스키는 인간의 발이 지면에 닿는 경기중 가장 빠른 경기라고 한다. 아스라한 스키주로를 눈깜짝할새 지체내

빨라지더니 어느새 도착점에 이른다. 스키에호가인 원산시 봉춘동에 산다는 황원철(43살)에게 스키의 매력에 대해 물었더니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내려갈 때의 긴장감, 도착하는 순간에 느

끼는 점을 그리고 눈깜박할새 지체내리는 속도》라며 씩 웃는다. 그런가하면 스키주로의 여가치기에서는 설경을 부감하는 동시에 탄성을 터뜨리며 경사면을 지체내리는 사람들, 표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키지도교원의 손을 잡고 열심히 스

키를 배우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 사람들도 보노라면 절로 손에 땀이 내내인다. 경사가 40°쯤 되어보이는 주로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터치며 아래를 향해 미끄러져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순간, 갑자기 새처럼 날아올랐다가 가법계 주로에 내려서는네 라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급해 비명을 내지른다. 속도가 점점



## 스키장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 수평승강기 스키장에는 스키라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삭도와 함께 수평승강기가 초급주로와 초중급주로에 특색있게 설치되어있다. 이밖에 스키장관리에 필요한 눈다짐차와 눈치차는, 열

저 눈에 띄우는 장치로서 온도와 습도, 기압과 바람상태를 비롯한 스키장의 기후상태를 조선어와 영어로 현시한다. ◆ 삭도 마식령스키장에는 스키라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어있다. 스키장의 삭도는 5개인데 그중 3개의 삭도는 대화봉정점까지 올라가는 4인용과 2인용의 자식 삭도이며 6주로에 2인용의 자식 삭도가, 초중급주로에 클립식 삭도가 있다.

## 구름위에 등실 떠있는 휴식각

해발높이 1 363m인 대화봉정점에 삭도를 타고 올라가면 연건축면적이 1 700㎡에 달하는 휴식각이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동해의 해돋이 장관과 설경에 잠긴 스키장의 경치를 부감할수 있다. 대화봉휴식각에는 산골맛이 나면서도 비행접시를 런상시키는 2층으로 된 휴식각이 있다. 한꺼번에 100여 명을 수용할수 있는 식사실

과 대형무리등이 설치되어있는 천정, 나무로 장식한 벽체와 기둥들, 금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대형어항, 맑은 구슬알이 흘러내리는것과 같은 물장식기둥이 있는 휴식각의 내부는 산속의 궁전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는 우리 나라 음식뿐아니라 세계의 이름난 요리들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떡운다. 방향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스키초보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새털방석처럼 포근한 눈우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져도 오히려 즐거운 모양이다.

스키타기의 즐거움중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눈부신 조영아래에서 멋들어진게 지체내리는 야간스키타기이다. 반짝이는 조영에 반사되어 더 환층 눈부신 스키장은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마식령눈바람은 몸시도 차진만 그속에서도 청춘남녀들이 야간스키를 타느라 여념이 없다. 무지개빛 눈부신 주로를 따라 맹렬한 속도로 지체내릴 때의 쾌감이야말로 야간스키의 멋이다.



음끼기차가 있으며 스키주로에 인공눈을 형성하는데 리용될 눈포와 눈총, 눈포용저수지를 비롯한 눈포용시설들도 있다.

또한 스키라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눈썰사와 눈오토바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키장의 여러곳에 야간조명체계와 음향설비가 있어 즐거운 기분으로 저녁에도 스키를 탈수 있다.



스키장에서 만난 사람들

### 스키를 타는 내 모습을

마식령스키장에 와서 마음껏 스키를 타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야영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야영기간 훈련을 잘하여 고급주로서 스키를 타는 나의 모습을 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싶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생 김은아

###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

마식령스키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꼭 와보고싶어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왔다. 스키를 배워보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견했던 휴가날자를 이틀이나 연장하였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펼쳐진 스키장의 절경에 취하니 좋고 또 늘 바빠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돌려 안해로부터 지청구를 받았던것도 봉창하니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다.

강원도 원산시 봉춘동 리 봉수

### 멋쟁이호텔을 나도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내외부를 목재로 정교하게 장식한것이며 색깔도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더운 색깔을 위주로 하여 멋있게 꾸려진 마식령호텔을 보니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많다. 나는 앞으로 마식령호텔과 같은 멋쟁이호텔을 척척 설계해낼수 있는 건축가로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겠다.

평양강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학생 우남혁

### 대화봉에서 확신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고국에 왔다가 마식령스키장에 들렀는데 상상밖이다. 솔직히 내가 사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조국에서 1년동안 스키장건설을 완공한다고 장담했을 때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스키장을 단 1년동안에 건설했다는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수 없다. 대화봉에 올라 나는 확신했다. 고국이 머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강성국가를 건설할것이라는것을, 재미동포 김 필 자

## 백설위에 솟은 마식령호텔



마식령스키장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멋쟁이호텔이 대번에 우리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마식령호텔은 각지에서 모여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로 흥성이고있었다. 호텔안에 들어서니 한낮에도 기온이 덜하로 떨어지는 바깥과는 달리 훈훈한 기온이 온몸을 감싸안았다. 호텔의 내부장식 역시 대자연의 수림속에 자리잡은 특성에 맞게 정교하고 세련되면서도 특색있게 꾸려져있었다. 지하 2층, 지상 9층의 2개 호동으로 이루어진 마식령

호텔에는 1동실, 2동실, 3동실, 가족방, 2인방, 6인방을 포함하여 120개의 손님방들이 수백여명을 수용할수 있게 되어있다. 1호동 2층에 있는 국제통신실과 회의 및 면담실, 상점 등들을 돌아본뒤 우리는 《어린이놀이장》이라고 씌여져있는 방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안내원처녀가 《원래 건설초기에는 어린이놀이방이 예견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녀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왔다가 스키를 타보지 못

하고 간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고 하시며 호텔설계안에 어린이놀이장을 첨부하도록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각종 놀이기구들과 간식방까지 갖춘 어린이놀이장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지하 1층에는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무도장과 오락실들이, 지하 2층에는 안마실, 리발실, 미용실들과 수중조음과, 덕수리, 찜방과 운동실을 겸비한 수영장이 구비

되어있었다. 호텔복도를 따라 2호동으로 걸음을 옮기니 이곳에는 스키학교였다. 이곳에서는 스키지도교원들이 손님들에게 스키배우기와 관련한 지식을 배워주고있었다. 스키는 갖난아이가 걸음마 때듯이 스키신발을 신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세와 균형, 제동, 돌리기, 압력조절 등

